

# 남도 수묵 정신...고향과 자연 풍경 새기다

전남도립미술관 초대 김선두전 3월 22일까지

예술 지닌 색의 결·획 경험...주요 연작 소개

독창적 회화 언어 구축...아티스트 토크도

남도 수묵의 정신을 토대로 전통 한국화의 미학을 오늘의 시각에서 재해석해 온 전남도립미술관의 지역작가 기획초대전이 마련된다. 전통 기법과 현대 감각이 결합된 독창적 회화 언어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혀가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쓴 전남 장흥 출생 김선두 작가(68·한국화) 초대전이 그것으로, 지난 40여 년간 구축해 온 예술 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립미술관 (관장 이지호)은 '색의 결, 획의 숨'이라는 타이틀로 한 김선두 작가의 기획초대전을 지난 12월 23일 개막. 오는 3월 22일까지 1~5전시실에서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남도의 자연 풍경에서 출발한 '남도 시리즈'를 포함해 '낮별', '느린 풍경', '지지



김선두 작가



'심그러운 폭죽'

않는 꽃', '아름다운 시절' 등 그의 주요 연작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으며, 출품작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작업한 작품 70점이다.

특히 대형 신작 '밤길'과 함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들을 다수 선보이며, 작가의 조형적 탐구와 회화적 실천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의 회화 핵심은 전통 한지인 장지 위에 동양화 분채와 안료를 혼합한 색을 수십 차례 반복해 쌓아올리는 독자적인 장치 채색 기법이 꼽힌다. 장지는 색을 천천히 머금고 스며들게 하는 고유의 물성을 지니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색은 겹겹이 축적돼 깊은 결을 형성한다. 이처럼 증점된 색의 층위는 단순한 색채의 반복을 넘어, 작가가 오랜 시간 지속해 온 수행과 사유의 흔적, 곧 '시간의 결'을 드러낸다.

전시 제목 '색의 결, 획의 숨'은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색은 시간을 머금은 결을 이루고, 획은 그 시간 속에서 남겨진 호흡과 움직임을 드러낸다. 이는 그의 회화의 핵심 미학으로, 전통 재료와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동시대적 감각과 조형 언어로 확장해 온 작가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전시는 연대기적 구성에서 탈피해 작가의 삶과 경험, 사유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요 대표작을 엮어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남도 풍경 속 자연의 감각과 서정을 담아낸 1장 '모든 길이 노래거리라'를 비롯해 들꽃의 이미지에 깃든 강인한 생명력을 조명하는 2장 '그거이 달개비꽃이여', 고향의 대지와 삶의 속도에 대한 성찰을 담은 3장 '사람다운 길은 곡선이라야 한다', 그리고 한국화의 동시대적 의미와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4장 '우

리 그림을 위하여' 등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작가의 예술적 조형 특징과 미학적 성취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어서 작가의 회화세계를 아로새길 수 있다.

또 전시에는 '시와 그림'을 매개로 한 참여형 공간이 마련. 관람객이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작가는 오랜 시간 문학인들과의 협업을 지속해온 가운데 "내게 시는 지난한 붓질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회화는 남도의 땅을 걸으며 마주한 삶과 자연, 그 속에 깃든 정서를 '길'이라는 서사적 모티프로 풀어내는 한편, 관객은 작품을 따라가듯 감상하면서 수묵이 드러낸 길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삶의 정서를 천천히 탐색하게 만든다.

김선두 작가는 남종 문인화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전남 장흥 출생 소천(小泉) 김천두(1928~2017) 화백의 장남으로, 남농 허건과 월전 장우성을 사사했으며, 작가 자신을 포함해 차남 김선일, 그리고 손자 김중열(서울대 한국화과)로 이어지는 3대 화가 가계를 형성해 국내 화단에서 보기 드문 예술적 계보를 이루고 있다.

김 작가는 '제7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을 계기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 고향 출신인 소설가 이청준 선생과의 30여 년 예술적 교류에 이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의 그림 대역 및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표지화를 그리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 아티스트 토크와 한국화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광주서 울려퍼지는 최정상 오케스트라 '화음'

예술의전당 35년 기념 '...위크'

13일 선예매...2월 3~6일 무대

시향·필 하모니 앙상블 등 참여

광주시립교향악단부터 일본 TPSO 스트링 앙상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앙상블까지, 개관 35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이 모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축제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Grand Orchestra Week)가 펼쳐진다.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는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 신년음악회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다채롭게 꾸려진다.

서울에 집중된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전통과 색채를 지닌 단체들을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연달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를 좁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을 확대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클래식 음악이 일상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축제의 포문은 2월 3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연다.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자로 나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주고, 이어 브람스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열며 브람스가 선



이병욱 지휘자



윤홍천 피아니스트



오바 요코 오보이스트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

사하는 낭만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깊은 감동으로 이끈다.

이어 둘째 날인 4일에는 KBS교향악단이 무대에 오른다.

거장 김홍재와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협연으로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 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번으로 무대를 이어간다.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KBS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는 축제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5일에는 일본 TPSO 스트링 앙상블이 관객과 만난다.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Tokyo Prime Symphony Orchestra)의 콘서트마스터 및 수석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이 앙상블은 현악의 섬세함과 깊이를 극대화한 무대를 선보인다.

클래식 해설가 안인모가 콘서트 가이드로 함께해 작품의 배경과 감상 포인트를 흥미롭게 풀어내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오보이스트 오바 요코가 마르첼로 오보에 협주곡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비발디 '사계' 전곡을 각각 협연한다.

축제의 대미는 6일 필하모닉 앙상블(Philharmonic Ensemble)이 장식한다.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현악 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실내악 편성 앙상블로, '2026 New Year Concert'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빈 필하모닉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신년 음악회' 레퍼토리를 통해 우아하고 중후한 빈 음악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으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고품격 사운드는 이번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의 화려한 피날레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티켓은 프리미엄석 7만원,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생 이상(2019년생)부터 관람 가능하다.

13일 오후 2시부터 유료회원 대상 선예매가 시작되며, 일반회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정기 작 '남녀노소'



서영기 작 '잃어버린 방향'

## 'ACC 뉴스트' 작가 선정...전시 지원 본격화

이정기·서영기·양나희·임수범·하승완 등 3~8월 선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최근 '2026 ACC 뉴스트(Newst, New+Artist)'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오는 3월 새로 개관하는 ACC 복합전시7관에서 전시할 뉴스트 작가는 이정기, 서영기, 양나희, 임수범, 하승완 등이다.

ACC는 지난해 11월 지역 작가의 창작과 전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6 ACC 뉴스트'를 통해 참여작가를 공모했다. 'ACC 뉴스트'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창작의 주체가 돼 작품과 전시를 선보이되, ACC가 함께 참여해 공공성과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협업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회화 등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작가의 개념 작업을 밀도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57개 팀이 지원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시각예술 분야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1·2차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4개 팀(5인)의 뉴스트 작가에게는 작품 제작과 전시를 위한 창작 지원비가 지급되며, ACC는 내부 인력을 작가와 1대1로 매칭해 전시 기획, 공간 구성, 전시 운영 등을 함께 협

의하며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평론과 전시 홍보를 위한 전문가와의 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ACC는 기존 복합전시1~6관 외 뉴스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복합전시7관을 새롭게 조성해왔다. 올해 3월 문을 여는 복합전시7관은 약 132㎡규모로, 향운·향습, 조형 등 작품의 보존과 전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을 갖췄다. ACC는 이곳에서 지역 작가의 창작과 전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 ACC 뉴스트' 작가 전시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복합전시7관 개관과 함께 첫 번째 전시로 이정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뉴스트는 ACC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ACC가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ACC를 발판으로 보다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립교향악단